

■ 주요 내용 ■

□ 국내 제조업의 저평가 현황

- (주가 저평가) 국내 제조업은 국내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음
 - 금년 3월 현재 상위 10대 기업 평균 PER은 한국 제조업 11.3, 한국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업 355.4, 미국 제조업 21.7, 미국 S/W·서비스업 79.7로 국내 제조업의 저평가 현상이 두드러짐
 - 제조업이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업체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그 격차가 심함
- (인력 부족) 제조업은 전반적인 인력 부족 상태에 처해 있으며, 특히 산업 기술 인력의 '脫제조업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창업 부진) 중소기업 창업 동향에서도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사회적 인기도 추락) 제조업은 결혼 희망 상대 직업 조사에서도 하위로 떨어지는 등 사회적 인기도가 크게 추락하고 있음

□ 제조업 저평가의 문제점

- (자금 조달난) 제조업체의 수익성과 경쟁력이 약화될 것임
 - 제조업 저평가로 제조업체들은 자금 조달난에 처하게 될 것임. 이미 금년 1~2월 증권 거래소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은 작년 동기에 비해 75.1% 줄어들음
 - 자금 조달난은 조달 금리를 상승시켜 수익성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임
 - 지금까지 쌓아올린 제조 강국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게 될 것임
- (도산 및 실업 증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관련 산업의 기업 도산과 구조적 실업의 증가를 낳을 것임

- (산업 구조 취약성 심화) 관련 부품 및 소재 산업이 취약해져 수입유발적 산업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임
- (무역 수지 악화) 제조업의 악화, 수입유발적 산업 구조의 심화로 무역 흑자 기조가 흔들릴 것임
- (정보화 발전 기반 약화) 정보화 산업 역시 정체될 것임
 - 제조업은 정보화를 위한 물적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취약해질 경우 정보화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도 어려워질 것임

□ 제조업의 중요성

- (무역 흑자 원동력) 제조업이 최근 무역 흑자에 크게 기여함
 - 국내 제조업은 對GDP 비중이 30% 이상으로 국민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 G7 국가를 보아도 일본, 독일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무역 흑자를, 미국 등 비중이 낮은 나라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세계적 경쟁 능력 보유)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은 현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쟁력과 인지도는 글로벌 디지털화 시대에 주요한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음
- (경제 성장 주도) 2000년대에도 제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것임
 - 향후 10년간 반도체, 섬유,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기여도가 소프트웨어, 컴퓨터, 생명공학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기여도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이 사는 길

- (저평가의 원인) 제조업체가 주주 및 근로자를 중시하지 않은 경영을 하고, 디지털 혁명이라는 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원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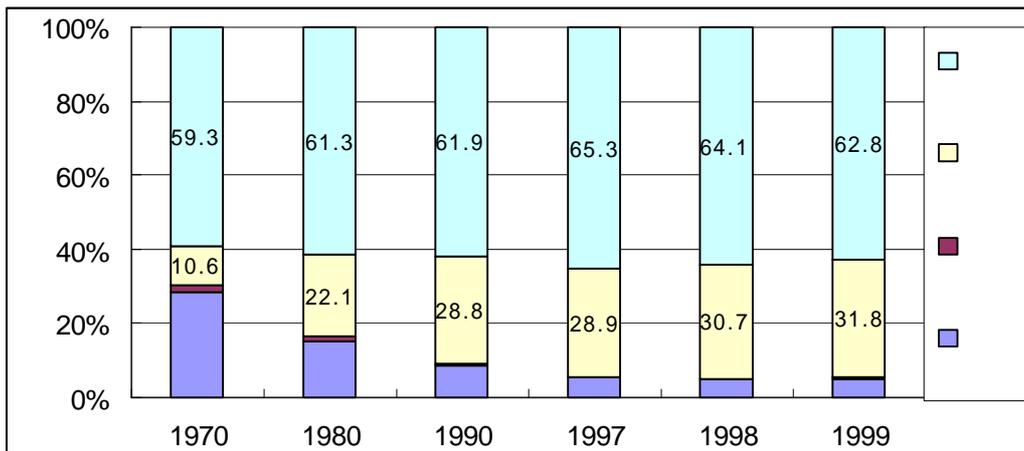
- 막대한 규모의 유상 증자로 주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디지털 혁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미래 가치를 중시하는 주주들로부터 외면 당함
- IMF 체제 이후 근로자들의 종신 고용 관행이 무너진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제조업에 머무를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인력 유출이 발생함
- **(경영 체질 개선)** 주주 및 근로자를 중시하는 경영 방식으로의 전환
 - 주가의 안정을 기하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들은 수익 중시 경영, 종업원 인센티브 확대 등 주주와 종업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으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함
- **(디지털화 대응)** 국내 제조업의 비교우위를 살리는 방향으로 디지털화에 대응
 - 제조업체들은 비교 경쟁 우위 요소인 제조 능력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제조업을 IT 기술을 활용한 지식기반형, 고부가가치형 제조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 인터넷을 활용하여 고객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총무, 인사, 기획, 재무 등 제반 경영 활동을 e-비즈니스화해나가야 함
- **(제조업-벤처기업 협력 강화)** 벤처기업의 동태적 성장력과 기술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제조업-벤처기업 협력 네트워크 확충
- **(제조업-정보화 산업의 동반 발전)** 자금, 인력, 물자 등의 균형있는 배분 필요
 - 전통적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의 동반 발전을 유도하여 정보화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원활한 이행과 이행 과정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이 융합된 복합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 산업의 M&A 및 제휴 활성화 필요

1. 제조업과 한국 경제

○ 제조업은 무역수지 흑자의 원동력

- (제조업 비중)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970년에 10%에 불과했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1999년에 31.8%를 나타냄
-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함께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아직까지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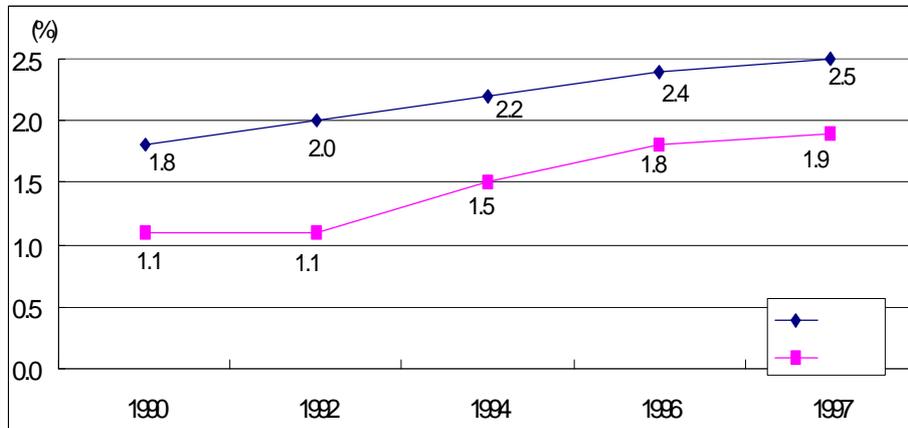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제조업의 수출 비중)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음
-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은 그 동안의 수출 확대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 서비스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7년 1.9%에 불과한 반면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은 2.5%로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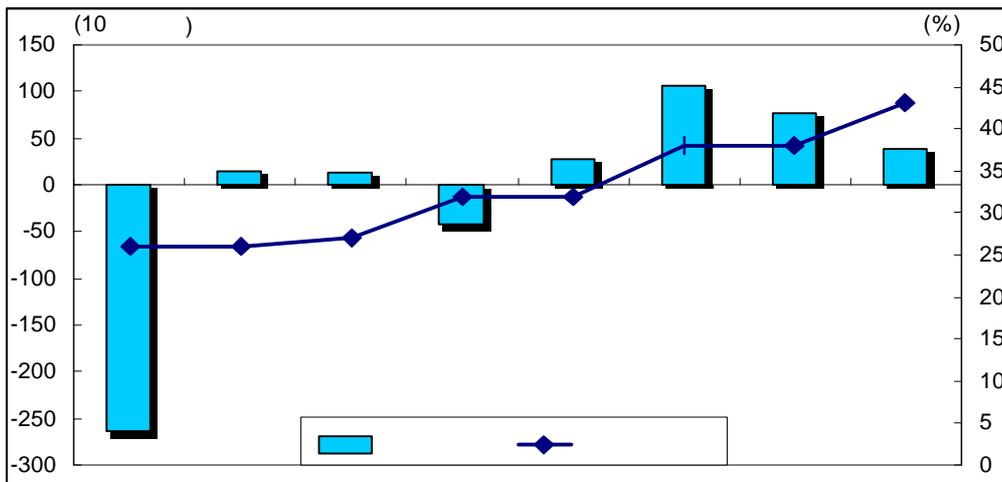
<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제조업 비중과 무역수지) G7 국가의 제조업 비중과 무역수지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나타남
 -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1997년 기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20% 대 이고,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은 30% 대에 속함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과 영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작음

<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과 무역 수지 >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

주: 제조업에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

- 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 독일, 한국 등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아직까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서라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는 제조업

- (세계적 경쟁력 제품 보유) 반도체, CDMA 휴대폰,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들은 세계시장에서 높은 인지도 및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컬러TV는 국내 가전 3사가 주요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레인지는 대우전자가 유럽시장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의 38%를 차지해 점유율 1위이며, TFT-LCD 도 99년 37.8%를 차지해 점유율 1위에 오름
- 이외에도 전통적 제조업인 자동차의 경우 생산 순위에서 7위(1999년)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가능성을 보여줌
- 이처럼 제조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브랜드 인지도는 디지털화, 글로벌화 시대에 주요한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주요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

품목	내용
메모리반도체	- 세계시장 점유율 1위('99년 38%)
TFT-LCD	- 세계시장 점유율 1위('98년 30.4%, '99년 37.8%)
CDMA휴대폰	- '99년 62%
모니터	- 세계시장 2위('98년 22.5%, '99년 30.5%)
자동차	- 생산량 세계 7위('99년 2,843,000대)
컬러TV	- 주요국 시장 점유율 1위(삼성전자 15개국, LG전자 12개국, 대우전자 4개국)
전자레인지	- 대우전자 유럽시장 전체 시장점유율 1위

자료: 주요 신문 기사 참조.

- (세계적인 제조 강국의 가능성) 향후 제조업에 대한 경쟁 능력을 강화시킨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국내 제조업이 디지털화의 흐름에 잘 적응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탈바꿈하게 될 경우 제조업의 국제 경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 많은 선진국가들에서 산업 구조의 서비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2000년대에도 제조업은 성장을 주도

- (생산 유발 효과) 제조업에 의한 생산유발 효과는 서비스업의 생산 유발 효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산 유발 계수의 변화 추이에서 제조업의 생산유발 계수는 2.917(1993년) 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1.80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서비스화가 진전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생산유발 계수의 변화 >

	1975	1985	1990	1993
제조업	2.610	2.865	2.953	2.917
서비스업	1.387	1.652	1.784	1.801

자료: KIET,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구조 변화의 분석」, 1998.

-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 주요 산업별로 성장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향후에도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남
 - KIET의 분석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반도체, 섬유,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기여도는 2~3%에 달하는 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 등 지식기반 신산

업의 기여도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생물, 항공 등 신산업 분야는 아직까지 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산업 규모가 작아 성장률은 높지만 GDP에 대한 기여도는 기존 주력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따라서 기반이 취약한 지식기반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을 고려할 때 기존 주력 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됨

< 주요 산업의 성장 기여도(2000~2010) >

기존 주력 산업		지식기반 신산업	
산업명	성장기여도	산업명	성장기여도
반도체	4.22 %	정밀화학	1.55 %
석유	2.89 %	전자부품	1.02 %
자동차	2.65 %	컴퓨터	0.99 %
철강	1.44 %	환경설비 및 서비스	0.92 %
석유화학	1.44 %	소프트웨어	0.62 %
가전	0.79 %	통신기기	0.58 %
		생물	0.12 %
		항공	0.09 %

자료: KIET,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산업분야”, 「KIET 산업경제」 2000.1.

주: 성장기여도=GDP에서 차지하는 해당 산업 부가가치 비중(2000)×해당산업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2000~2010)

II. 국내 제조업의 평가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제조업 평가 현황

- 한국 제조업은 무역 수지 흑자, 경제 성장을 이끌 견인차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음
- 이를 주식시장, 인력 수급, 창업, 사회적 인기도 측면에서 살펴봄

○ 주식시장 측면

- (방법) PER(Price-to-Earnings Ratio)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
 - PER(주가/주당 순이익)는 기업의 이익에 비해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업 가치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PER가 높을 경우는 고평가, 낮을 경우는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함
- (국내 제조업의 저평가) 국내 제조업은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에 비해서도 크게 저평가되어 있음
 - 2000년 3월 중순 현재 한국의 상위 10대 제조업체의 PER는 평균 11.3, 한국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 업체는 355.4, 미국 제조업체는 21.7, 미국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 업체는 79.7임
 - 국내 제조업은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 업체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음.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그렇지만 제조업과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업의 평가 격차는 한국의 경우가 미국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내 제조업은 미국 제조업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의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업은 미국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음

<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과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업의 PER 비교 >

순위	한국				미국			
	제조업	PER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	PER	제조업	PER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	PER
1	삼성전자	14.8	새롬기술	2,066.7	GM	8.6	마이크로소프트	60.0
2	포항제철	7.9	다음	130.7	포드	7.5	오라클	128.0
3	현대전자	21.0	로커스	234.3	GE	43.0	AOL	155.0
4	담배인삼공사	23.6	핸디소프트	497.0	IBM	26.5	찰스스왑	71.4
5	삼성전기	N.A.	싸이버텍	638.1	필립모리스	6.3	아마존	N.A.
6	LG정보통신	14.5	코리아링크	161.0	보잉	14.3	인튜이트	31.3
7	LG화학	8.7	인성정보	81.8	휴렛팩커드	46.0	네트웍 어소시에이트	29.8
8	현대차	5.9	넥스텔	256.7	듀폰	26.8	캠브리지 테크	396.9
9	LG전자	1.6	인디시스템	336.5	프록터 & 갬블	23.1	이트레이드	N.A.
10	현대중공업	6.4	장미디어	589.0	텍사코	24.1	나이트그룹	32.2
평균	11.3		355.4		21.7		79.7	

주: 1) 한국은 2000년 3월 17일 현재, 미국은 3월 15일 현재의 것임.
 2) 각 부문별 상위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부록을 참조할 것.
 3) 평균은 가장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 하나씩을 제외하고 단순 평균한 것임. 단, N.A는 제외하고 계산.

○ 인력 수급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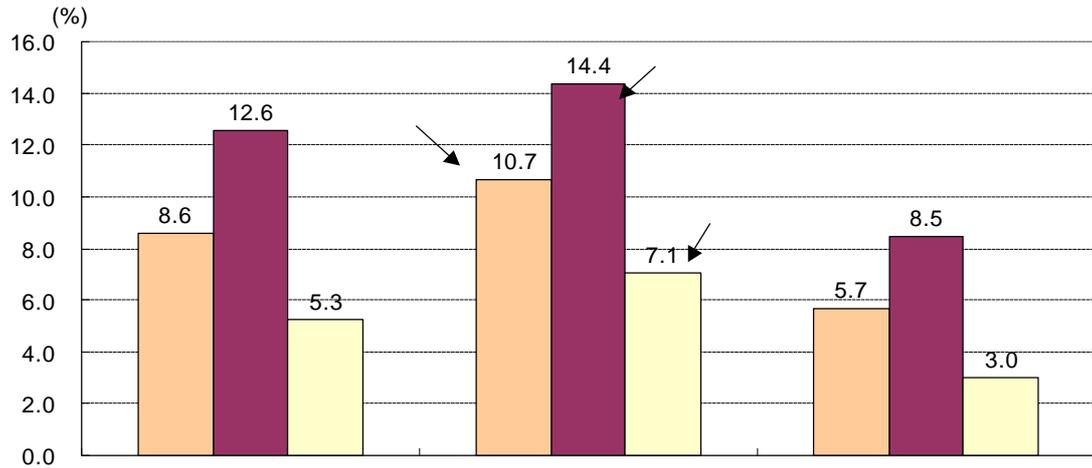
- (제조업 전반) 제조업 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태에 있음
 -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상태임
 - 노동부의 산업별 인력 과부족 사업체 비율 조사에 따르면, 산업별 기준으로 제조업이 19.9% 포인트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¹⁾
- (기술 인력 부족)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직 등 산업 기술 인력 부족률이 서비스업은 물론 전산업

1) 노동부, 「2000년 고용동향」, 2000. 1. 4. 참조. 인력 과부족 사업체 비율은 인력 과잉 사업체 비율에서 인력 부족 사업체 비율을 차감한 것임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기술 및 단순기능직 등 생산 부서의 기술 인력 부족으로 조업 자체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직종별 산업 기술 인력 부족률 >



자료: 김승택 외, 「지식기반산업분야 인력수급 실태분석 및 전망과 산업기술인력수급 효율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00. 1. 31.

- (탈제조업 현상) 인력 부족은 ‘탈제조업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탈제조업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 있음

- 제조업의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은 경기 회복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어난 데도 기 인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산업 등으로의 인력 집중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임

< 산업 기술 인력의 移職 희망 >

(단위: %)

	移職 의향 없음	동일 업종으로 移職 희망	타 업종으로 移職 희망	기 타	계
벤처기업	67.68	25.69	6.63	-	100.0
非벤처기업	59.99	28.70	11.19	0.12	100.0
전 체	61.39	28.15	10.36	0.10	100.0

자료: 김승택 외, 「지식기반산업분야 인력수급 실태분석 및 전망과 산업기술인력수급 효율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00. 1. 31.

- 기술 인력의 移職 의사 조사에서도 非벤처 기업의 이직 희망률이 벤처 기업보다 높고 특히 타업종으로의 이직 희망률은 벤처 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고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²⁾

○ 창업 추세 측면

- (창업 비중의 저하) 신설 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
- 경기 회복으로 전반적으로 신설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창업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제조업은 99년 1월만해도 신설 기업중 29.4%를 차지했으나 12월에는 25.0%로 하락하였음
- 반면 서비스업의 창업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가 전체 신설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1월 5.4%에서 12월 13.9%로 크게 증가함

< 중소기업의 창업 신설 동향(업종별) >

	99년 1월	99년 6월	99년 12월	99년 전체
신설법인수	2,286	2,696	3,099	29,976
제조업	673 (29.4)	766 (28.4)	775 (25.0)	8,114 (27.1)
서비스업	519 (22.7)	673 (25.0)	911 (29.4)	8,028 (26.8)
S/W 정보통신	123 (5.4)	227 (8.4)	430 (13.9)	2,668 (8.9)

자료: 중소기업청, '99년 7대도시 소재 신설법인 창업 동향 조사, 2000.1.

○ 사회적 인기도 측면

- (인기 하락) 결혼 희망 상대의 직업 조사에서 제조업의 인기가 하락함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사원의 비중이 95년 30%(1위)에서 2000년에는 3위

2) 타업종으로의 移職이 반드시 非벤처에서 벤처로의 移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개발직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8%로 하락하여 제조업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의 지위는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벤처기업가들이 최고의 결혼 상대자로 떠오르고 있음

< 결혼 희망 직업의 변화 >

조사기관	선우(95.8)	선우(97.3)	에코러스(2000.2)	닥스클럽(2000.2)
1위	대기업 사원 30%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 32%	전문직 종사자 39%	벤처사업가 32.8%
2위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 25%	공무원 22%	벤처와 정보통신종사자 31%	의사 25%
3위	금융기관 사원 17%	대기업사원 20%	대기업 18%	증권중개인 18%
4위	공무원 15%	금융기관 12%	공무원 8%	공무원 13.5%
기타	개인사업자 3%	개인사업 8%		공사단체, 교사, 자영업 순

주: 에코러스는 광주, 전남·북 지역 24세 이상 33세 미만 미혼 남성 600, 여성 400명 대상으로, 닥스클럽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25-36세 남녀 192명 대상으로, 선우는 결혼 적령기 여성 300명 대상으로 함.

2. 제조업 저평가의 문제점

- (자금 조달 곤란 및 금리 압박) 제조업체들의 자금 조달 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 상승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음
- 제조업체들이 주로 소속되어 있는 증권거래소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로 직접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곤란을 받고 있음
- 거래소 시장에서의 2000년 1~2월 자금 조달 실적은 작년 동기에 비해 75.1%나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간접 금융 시장 의존도가 심화되어 모처럼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금리 상승에 따른 제조업체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조업의 가능성을 봉쇄하게 될 것임. 또한 이는 다시 제조업 저평가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음

< 주식 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 조달 실적 >

		1999년 1~2월		2000년 1~2월		증감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유상증자	거래소	18	39,026	11	9,707	-75.1
	코스닥	-	-	35	8,900	-
기업공개	거래소	-	-	-	-	-
	코스닥	-	-	12	1,4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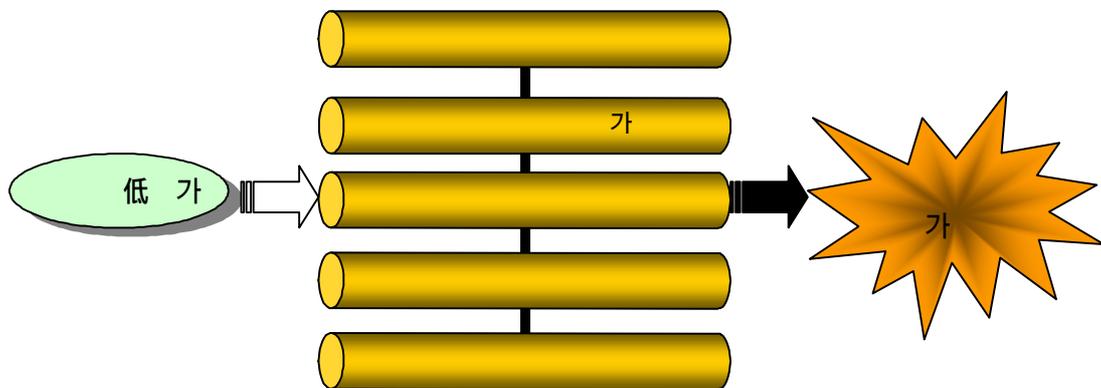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2000년 1~2월 직접금융 조달실적」, 2000. 3. 13.

- (실업의 증가)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이 흔들릴 경우 실업의 증가가 우려됨
 -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은 대부분은 대규모 가공조립산업으로서 광범위한 산업 연관 효과로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큰 반면 정보통신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조업의 약화는 제조업체의 도산과 부품·소재 등 관련 산업의 약화로 이어져 구조적 실업을 크게 증가시킬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 등의 재교육이나 직업 훈련 제도 등이 미비함에 따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이 신속히 다른 부문으로 흡수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기술 인력의 경우 재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육성하기보다는 스카우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벤처 기업 등에서의 기술 인력 수요 증가는 곧바로 非벤처기업의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약화) 제조업의 약화는 관련 부품 및 소재 산업 전반의 침체로 귀결될 것임
 -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대부분은 대규모 가공조립산업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이 광범위함
 - 따라서 제조업의 약화는 제조업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관련 부품 및 소재산업 기반의 광범위한 침체로 귀결됨

- (수입 유발적 산업구조 강화) 부품 및 소재산업 약화는 산업구조의 수입유발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취약성으로 수입유발적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제조업 저평가에 따른 부품·소재 산업 약화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무역 수지 악화) 제조업의 약화는 단기적으로 무역 수지 악화,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기반 잠식을 가져올 수 있음
 -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 산업도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임
 - 메모리 반도체, TFT-LCD, 자동차 등 국가 전략 수출 품목들도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배경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 아직까지 정보통신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의 수출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약화는 곧바로 수출 산업의 약화를 의미하게 됨
 - 더욱이 수입 유발적 산업 구조의 강화는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정보화 발전 기반 약화) 제조업은 정보화의 物的 기반이며 따라서 제조업의 약화는 정보화 경제로의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됨
 - e-비즈니스의 키워드인 전자상거래의 거래 품목도 결국은 제조업 제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보화나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구축 등에도 제조업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처럼 정보화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과 발전도 결국은 제조업의 지원과 뒷받침 하에 가능한 것임
 - 또한 이러한 정보화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결국 제조업의 경쟁력에 바탕하여야 하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보화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善循環 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III. 제조업이 사는 길

- 제조업 저평가의 원인

- 제조업의 저평가 상황은 코스닥의 상대적 붐 외에도 제조업체들이 주주와 社員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은 경영을 한 데 그 원인이 있음
- 막대한 유상 증자가 이루어져 주식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였으며, IR 활동에 소홀하여 대규모 수익이 주가로 연결되지 못하였음. 또한 사원들은 종신 고용이 무너진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을 갖지 못하였음
-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디지털 혁명이라는 큰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주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음

- 저평가 상황의 극복 방안

- 제조업이 정보화산업과 동반 발전해나간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 국내 제조업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을 디지털화와 연계시킴으로써, 그리고 제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 능력을 높여가야 할 것임
- 그리고 주가의 안정을 기하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주주와 사원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제조업의 경영 체질 개선

- 社員에 희망을 주는 경영

- 제조업 대기업이 상대 우위를 지녔던 고용 안정성, 사내 복지가 축소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톡 옵션, 성과급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대폭 개선을 통해 노력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함

-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

- 주주의 관심으로부터 떨어진 기업은 점차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회사의 규모 확장 보다는 회사 수익의 증대로 인한 배당 수익과 자본 이득에 관심있으므로, 규모보다는 수익 등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 목표를 전환해야 할 것임
- 또한 적극적인 국내외 IR 활동의 전개를 통해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이와 함께 무리한 증자 시도 포기, 시가 배당의 확대 등 주가의 안정과 주주에의 수익 환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임

○ 디지털 시대에 대한 제조업의 유연한 적응

-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에의 유연한 적응이 필요

-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므로, 이러한 흐름에 제조업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임

- 한국, 제조 능력의 비교우위를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디지털화에 대응

-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누려 왔음. 몇몇 제품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조능력의 우위는 부품의 모듈화 경향, IT(정보기술)화 경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축소되어 갈 것임
-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은 자신들이 갖는 제조 능력의 노하우를 표준화, 시스템화하여 비교 우위 능력을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지능 기능을 가지는 자동차, 전자 제품 등 IT 기술을 활용한 지식기반 제조업, 고부가가치형 제조업으로 한 단계 레벨 업시켜야 할 것임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 대응하여 제조업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임
- 제조업의 경우 다수의 고객과 협력업체가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디지털에 기반하여 B2C, B2B 등의 새로운 네트워크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 뿐만 아니라 인사, 총무, 기획 등 내부 경영 활동 역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갈 필요 있음

○ 제조업 벤처기업의 활성화

- 벤처기업 활성화 필요성

- 제조업은 급속한 기술 변화, 기술의 복잡화 현상으로 일개 기업이 모든 기술을 자

-
- 체 내에 보유하기 어렵게 됨
 - 벤처 기업은 전문 영역의 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제조업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강화
 -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은 벤처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과 설비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은 대기업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제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활발한 M&A 및 각종 제휴가 요망됨

○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의 동반 발전

-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 제조업은 정보화 산업 발전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정보화 산업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관계에 있음
 - 따라서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여야 경제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자금, 인력, 물자 등 자원이 양 산업에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할 것임
-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의 융합 도모
 - 한편, 최근에는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이 융합하여 복합 상품의 경쟁력이 중요시되고 있음
 - 즉,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질 뿐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와 신속한 제품 배달, A/S 등을 총체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복합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화 산업과 제조업이 상호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산업간의 활발한 M&A와 각종 제휴가 필요함
 - 예컨대 소니는 금년 3월 「플레이 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를 출시했으나, 소니는 게임기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게임기의 인터넷 기능을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A/S를 수행하려 하고 있음

(김용복 연구위원 ybkim@hri.co.kr ☎ 3669-4041
정진우 연구위원 jwjeong@hri.co.kr ☎ 3669-4033
신광철 연구위원 kcshin@hri.co.kr ☎ 3669-4036)

<부록 : PER 분석 >

< 미국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서비스 상위 10대 기업 >

순위	기업명	매출액	시가총액	PER	EPS	시장구분
1	마이크로소프트	197	4,938	60.0	1.59	나스닥
2	오라클	91	2,233	128.0	0.64	"
3	AOL	48	1,374	155.0	0.4	뉴욕거래소
4	찰스스왑	41	410	71.4	0.7	나스닥
5	아마존	10	206	N.A.	-2.18	"
6	인튜이트	8.5	97	31.3	1.66	"
7	네트웍 어소시에이트	7.9	47	29.8	1.14	"
8	캠브리지 테크	6.3	10	396.9	0.04	"
9	이트레이드	6.2	59	N.A.	-0.17	"
10	나이트그룹	6.2	50	32.2	1.46	"

주: 1) 대상기업 선정 : Fortune e-50 분류중 인터넷 업체(e-companies, 19개)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업체(net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 16개) 35개 업체 중 1998년 매출액 순위로 선정함.

2) PER = 주가/EPS임. EPS(주당 순이익)는 나스닥 시장 자료에서 구함. 여기서 순이익은 가용한 4개 사분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임. 주가는 2000.3.15자의 것을 활용함.

< 미국 제조업 상위 10대 기업 >

순위	기업명	매출액	시가총액	PER	EPS	시장구분
1	GM	1,613	651	8.6	9.18	뉴욕거래소
2	포드	1,444	499	7.5	5.85	"
3	GE	1,005	4,548	43.0	3.23	"
4	IBM	817	1,978	26.5	4.12	"
5	필립모리스	578	479	6.3	3.2	"
6	보잉	562	333	14.3	2.5	"
7	휴렛팩커드	471	1,332	46.0	2.89	"
8	듀폰	391	603	26.8	2.0	"
9	프록터 & 갬블	372	787	23.1	2.59	"
10	텍사코	317	285	24.1	2.14	"

주: 1) 대상기업 선정은 매출액(1998년) 기준 포춘 500대 기업 중 상위 10대 제조업체로 함. 단 Exxon과 Mobil은 합병 진행중인 관계로 제외함.

2) PER = 주가/EPS임. EPS(주당 순이익)는 나스닥 시장 자료에서 구함. 여기서 순이익은 가용한 4개 사분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임. 주가는 2000.3.15자의 것을 활용함.

< 한국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서비스 10대 상위 기업 >

순위	기업명	시가총액	PER	EPS	시장구분
1	새롬기술	41,655	2,066.7	55.64	코스닥
2	다음	22,080	130.7	1,407.4	"
3	로커스	20,120	234.3	932.64	"
4	핸디소프트	14,230	497.0	2169.23	"
5	사이버텍	8,721	638.1	253.1	"
6	코리아링크	5,928	161.0	708.06	"
7	인성정보	5,898	81.8	468.34	"
8	넥스텔	3,920	256.7	218.14	"
9	인디시스템	3,448	336.5	1463.54	"
10	장미디어	3,290	589.0	199.49	"

주: 1) 대상기업 선정 : 코스닥에서 정보산업 S/W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체(자료; www.kosdaq.or.kr) 중 2000.3.3 현재 기준 시가 총액 순으로 선정.

2) PER = 주가/EPS임. EPS(주당 순이익)를 구하기 위해 1999년 순이익은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이 코스닥에 제출한 경영참고사항 활용함. 평균발행주수는 99년 1월초의 주수와 2000.3.3의 주수를 단순평균한 것임. 그런데 그간 유상 증자, 액면 분할 등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99년 1월초의 주수는 현재의 주수를 (현재 자본금/99.1월 자본금)으로 나누어 환산한 것임. 주가는 2000.3.17의 것을 활용함.

< 한국 제조업 상위 10대 기업 >

순위	기업명	시가총액(억원)	PER	EPS	시장구분
1	삼성전자	409,921	14.8	18,510	거래소 시장
2	포항제철	107,576	7.9	13,411	"
3	현대전자	88,418	21.0	990	"
4	담배인삼공사	52,905	23.6	1,599	"
5	삼성전기	52,006	N.A.	-2,881	"
6	LG정보통신	38,780	14.5	10,093	"
7	LG화학	30,744	8.7	3,156	"
8	현대차	28,037	5.9	2,343	"
9	LG전자	27,302	1.6	17,160	"
10	현대중공업	23,940	6.4	5,874	"

주: 1) 대상기업 선정 : 거래소 시장에서 2월 현재 시가 총액 기준으로 제조업 상위 10대 기업을 선정함.

2) PER = 주가/EPS임. EPS(주당 순이익)는 www.paxnet.co.kr가 각 기업의 1999년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추출한 자료 활용함. 단,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현대중공업은 언론에서 예상하고 있는 순이익을 활용하였고, 평균발행주수는 앞서 정보산업관련 기업에 적용하였던 방식을 통해 구함. 주가는 2000.3.17의 것을 활용함.